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비교 연구

백 명 화<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병원 및 의료전달체계는 보다 다원적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간호직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현대사회의 도전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간호사는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이다.

한편 미국 중환자간호사회(AACN;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에서는 중환자간호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다루는 간호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를 위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복잡한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대부분 환자들은 증상이 매우 심하고, 의식이 저하되거나 사망률이 높은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환자 간호는 기본적인 간호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적인 판단을 요하는 특수간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숙련된 간호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성상 위기에 처해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간호학적 기술을 제공하고, 다양한 환자요구에 대처해야 하는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들은 일반 병동 간호사와는 달리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Poncet, Toullic, Papazian, Kentish, Timsit, Pochard, & Chevret, 2007).

한편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암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 사망자 수는 2003년 우리나라

라 총 사망자 24만 6천명 가운데 25.9%인 6만 4천명(1일 평균 174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Oh, 2005).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한 암 치료법의 개발은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간호를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에는 암 환자의 중증도 증가와 새로운 치료법의 출현, 환자의 권리 의식 증대로 간호요구도와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Lamkin, Rosiak, Buerhaus, Mallory, & Williams, 2001).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항암제 노출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잦은 환자의 사망, 암 환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의학적 한계, 가족들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Eun, 2005).

Seo(2000)도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늘어난 역할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의사와의 관계,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투약문제 등에 대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간호사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간호직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환자 간호의 질 저하와 간호직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여, 특히 개인이나 업무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직 간호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사용한 스트레스 예방, 관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특히 중환자실과 암병동 같이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주요어 : 중환자실 간호사, 암병동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대처

1) 진주보건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bmwha@naver.com)

투고일: 2007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5일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개발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 정도를 비교해 보며,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병동의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가 직무 수행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따른 대처 정도를 확인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다.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대처 정도를 비교한다.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용어의 정의

### ● 직무 스트레스

인간과 환경의 평형을 방해하는 특성을 지닌 자극으로서의 개념과 환경적 요구 및 내적인 요구가 개인, 사회, 조직체계의 적응능력보다 과중할 때 나타나는 정도(Lazarus & Folkman, 1984)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Kim(1989)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기초로 보완하여 동료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할 점수이다.

### ● 대처

개인이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도구를 Han과 Oh(1990)가 번역하고 수정한 대처방식 도구로 측정할 점수이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가 직무 수행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정도를 비교해보며, 직무스트레스와 대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J시와 P시 소재의 500병상 이상 2개 진료기관의 중환자실 간호사 62명과 암병동 간호사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자료 수집 과정

자료수집 과정은 연구자가 500병상 이상 2개의 진료기관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해당 간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하고 중환자실과 암병동 수간호사를 통하여 일반 간호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다음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각 집단의 표본수는 Cohen(1988)의 공식에 따라 유의수준  $\alpha=.05$ 에서  $power=.75$ , effect size는 medium으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집수 57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수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 도구

#### ●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의 총 4개 문항이며, 근무 특성은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경력, 직위, 간호직 만족도, 현 병동 업무량 만족도, 현 근무 병동의 인간관계 만족도에 관한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한 것으로 Kim(1989)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기초로 3인의 간호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설문지의 내용은 간호업무 17개 문항, 직무환경 13개 문항, 대인관계 15개 문항, 병원행정 및 병동관리 10개 문항의 총 4개 영역,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Likert의 5점 척도로 '매우 심하게 그렇다 5점', '심하게 그렇다 4점', '보통 그렇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점수범위는 55점에서 2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3$ 이었다.

#### ● 대처

간호사의 대처 측정 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것을 Han과 Oh(1990)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 영역 8개 문항, 희망적 관점 영역 5개 문항, 무관심 영역 6개 문항, 사회적 지지탐색 영역 7개 문항, 긍정적 관점 영역 4개 문항, 긴장해소 영역 2개 문항의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항상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총 점수 범위는 32점에서 1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대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Han과 Oh(199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9$ 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chi^2$ 로 비교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t-test로 비교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대처 정도는 t-test로 비교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대처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는 <Table 1>과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학력은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에서 암병동 간호사에서 개신교(16.18%)와 천주교(23.53%)가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환자실 간호사는 암병동 간호사에 비하여 불교(32.2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8.863, p<.05$ ).

### 연구 대상자의 근무 특성

연구 대상자의 근무 특성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근무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근무부서 경력에서는 암병동 간호가 1년 미만 이 6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환자실 간호사는 3년 이상이 5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i^2=33.958, p<.01$ ).

간호직 만족도에서는 암병동 간호사가 그저 그렇다 57.35%로 가장 높았으나, 중환자실 간호사는 만족한다가 4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i^2=7.837, p<.05$ ).

또 병동 업무량 만족도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불만족 51.61%로 가장 높았으나, 암병동 간호사는 그저 그렇다가 4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i^2=13.275, p<.01$ ).

근무팀의 인간관계 만족도에서는 암병동 간호사가 만족한다 85.29%로 가장 높았으며 중환자실 간호사도 만족한다가 5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i^2=14.541, p<.01$ ).

###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비교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비교는 <Table 3>과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무스트레스는 중환자실 간호사(M=2.93)가 암병동 간호사(M=2.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453, p<.01$ ).

<Table 1> Comparis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ICU Nr. vs Cancer ward Nr.

Characteristics	Criteria	Ward		$\chi^2$	p
		ICU Nr. N(%)	Cancer ward Nr. N(%)		
Age(yrs)	Below 25	19(30.65)	29(42.65)	2.657	.265
	25 ~ 29	28(45.16)	22(32.35)		
	Above 30	15(24.19)	17(25.00)		
Marital status	Unmarried	48(77.42)	51(75.00)	.105	.746
	Married	14(22.58)	17(25.00)		
Education	College	37(59.68)	44(64.71)	.349	.555
	Above university	25(40.32)	24(35.29)		
Religion	Christianity	5( 8.06)	11(16.18)	8.863*	.031
	Catholicism	7(11.29)	16(23.53)		
	Buddhism	20(32.26)	10(14.71)		
	None, Others	30(48.39)	31(45.59)		

\*: p<.05

&lt;Table 2&gt; Comparison on working characteristics of ICU Nr. vs Cancer ward Nr.

Characteristics	Criteria	Ward		$\chi^2$	p
		ICU Nr. N(%)	Cancer ward Nr. N(%)		
Work experience (yrs)	Below 1	12(19.35)	18(26.47)	5.834	.120
	1~5	25(40.32)	32(47.06)		
	5~10	15(24.19)	6( 8.82)		
	Above 10	10(16.13)	12(17.65)		
Experience	Below 1	17(27.42)	44(64.71)	33.958**	.000
	1~3	12(19.35)	19(27.94)		
	Above 3	33(53.23)	5( 7.35)		
Position	Staff nurse	59(95.16)	64(94.12)	.069	.552
	Head nurse	3( 4.84)	4( 5.88)		
Satisfaction of nursing	Unsatisfied	9(14.52)	2( 2.94)	7.837*	.020
	Uncertain	24(38.71)	39(57.35)		
	Satisfied	29(46.77)	27(39.71)		
Satisfaction of work	Unsatisfied	32(51.61)	15(22.06)	13.275**	.001
	Uncertain	21(33.87)	31(45.59)		
	Satisfied	9(14.52)	22(32.35)		
Satisfaction of personal relations	Uncertain	28(45.16)	10(14.71)	14.541**	.000
	Satisfied	34(54.84)	58(85.29)		

\*\* : p<.01, \* : p<.05

&lt;Table 3&gt; Comparison on job stress of ICU Nr. vs cancer ward Nr.

Job stress	Ward		t	p
	ICU Nr. M±SD	Cancer ward Nr. M±SD		
Nursing job	2.69±.49	2.40±.40	3.717**	.000
Job circumstances	3.26±.54	2.78±.63	4.558**	.000
Personal relations	2.84±.54	2.51±.54	3.424**	.001
Hospital administration and ward management	3.05±.61	2.71±.68	2.942**	.004
Total	2.93±.45	2.58±.45	4.453**	.000

\*\* : p<.01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항목인 간호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중환자실 간호사(M=2.69)가 암병동 간호사(M=2.40)보다 높았고(t=3.717, p<.01), 직무환경 관련 스트레스도 중환자실 간호사(M=3.26)가 암병동 간호사(M=2.78)보다 높았다(t=4.558, p<.01).

또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M=2.84)가 암병동 간호사(M=2.51)보다 높았고(t=3.424, p<.01), 병원행정 및 병동관리 스트레스에서도 중환자실간호사(M=3.05)가 암병동

간호사(M=2.71)보다 높았다(t=2.942, p<.01).

### 연구 대상자의 대처정도 비교

연구 대상자의 대처정도 비교는 <Table 4>와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대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처 정도는 암

&lt;Table 4&gt; Comparison on Coping of ICU Nr. vs Cancer ward Nr.

Coping	Ward		t	p
	ICU Nr. M±SD	Cancer ward Nr. M±SD		
Solution for major problem	2.85±.29	2.93±.34	-1.502	.136
Positive interest	2.70±.46	2.82±.45	-1.474	.143
Search of social support	2.59±.35	2.78±.40	-2.865**	.005
Indifference	2.30±.42	2.27±.42	.382	.703
Hopeful aspect	2.26±.46	2.32±.45	-.663	.508
Tension release	2.38±.66	2.54±.68	-1.346	.181
Total	2.55±.26	2.64±.27	-1.975	.051

\*\* : p<.01

병동 간호사(M=2.64)가 중환자실 간호사(M=2.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체 정도의 하위영역으로는 사회적지지 탐색적 대처에서 암병동 간호사(M=2.78)가 중환자실 간호사(M=2.59)보다 대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65, p<.01$ ). 그러나 문제중심적 대처, 긍정적관점 대처, 무관심관점 대처, 희망적관점 대처, 긴장해소 대처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 정도의 하위 영역인 문제중심적 대처, 긍정적관점 대처, 무관심관점 대처, 희망적관점 대처, 긴장해소 대처 모두에서 암병동 간호사의 대처 정도가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높았다.

###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상관 관계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대한 상관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 직무스트레스와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 간( $r=.296$ )에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행정 및 병동 관리스트레스와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 $r=.266$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행정 및 병동 관리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병동 간호사의 간호 직무스트레스와 전체 대처 정도( $r=.266$ )간에도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대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가 직무 수행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대처정도를 확인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고자 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간의 직무 스트레스 비교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암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 연구대상 두 그룹 모두 스트레스 하위 항목 중 직무환경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간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것은 아니나 206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Gang(2007)의 연구에서 평균 2.96점으로, 본 연구의 중환자실 간호사 직무스트레스가 평균 2.93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123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 3.96점으로 본 연구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암병동 간호사보다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더 많고, 간호직에 따른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간호직을 사랑하고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나날이 변화하고 전문화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하는 중환자실은 경력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병동인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Table 5> The relationships with Job stress and Coping of ICU Nr. vs Cancer ward Nr.

Ward	Job stress	Coping	Job stress				Total
			Nursing job	Job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Hospital administration and ward management	
ICU Nr.	Solution for major problem		.002	-.168	-.110	-.005	-.089
	Positive interest		.045	-.172	-.219	-.065	-.127
	Search of social support		.054	-.054	-.146	.144	-.012
	Indifference		.296*	.037	.141	.266*	.211
	Hopeful aspect		.180	.066	-.034	.214	.113
	Tension release		-.155	-.166	-.094	-.070	-.148
	Total		.150	-.097	-.106	.154	.018
Cancer ward Nr.	Solution for major problem		.219	-.085	-.118	.023	.000
	Positive interest		.154	-.190	-.096	-.056	-.067
	Search of social support		.171	.007	.035	-.012	.058
	Indifference		.160	-.016	.043	-.033	.044
	Hopeful aspect		.118	-.164	-.163	-.149	-.116
	Tension release		.206	-.165	-.037	.041	.002
	Total		.266*	-.137	-.081	-.050	-.012

\*:p<.05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스트레스정도에서 206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Gang(2007)의 연구와 Kristina Berg(2002)의 연구와 같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직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200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00)의 연구와 Poncet 등(2007)의 연구, Verhaeghe, Vlerick, Backer, Maele와 Gemmel(2006)의 연구에서도 직무 환경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응급과 위기관호를 필요로 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치료기기,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여러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과 이에 맞는 수준 높은 기술과 판단력이 필요하기에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상의 근무 환경 및 적절한 보상과 첨단화된 의료환경과 다영역으로 세분화된 의학의 전문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2.58점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129명의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 3.48로 높게 나타나 본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Park(2006)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여겨지며, Park(2006)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133명의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2005)의 연구에서는 318점 만점에 213점으로 중간 정도의 직무스트레스를 보여 Park(200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연구 도구는 아니나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나타낸 Park(2006)의 연구와 본 연구 결과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처럼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보아 향후 암병동 간호사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스트레스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병동 특성을 고려한 신뢰도 및 타당도 높은 표준화된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확대, 반복된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2000)은 근무 부서별 직무스트레스 정도 연구에서 중환자실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였고,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Kim(2001)의 직무스트레스 점수 2.62점과 Jeon(2004)의 직무스트레스 점수 2.55점이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003)의 직무스트레스 2.67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 병동 간호사와 응급실 간호사보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위급하고 심각한

중증 질환자의 간호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일반병동 간호사와 암 병동 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암 병동 간호사들이 일반병동 간호사들에 비해 건강상태 및 직무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한 Kim(2004)의 연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다른 유사한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보아 암병동 간호사는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암환자 증가에 따른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스트레스가 많은 중환자실과 암병동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는 찾지 못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사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높은 지적 판단과 특수간호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름대로 죽음을 대비한 환자들을 돌보는 암병동 간호사가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대처 정도비교는 암병동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 110명과 일반 병동 간호사 130을 대상으로 한 Oh(2005)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 간의 대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면에서 암병동 간호사 중 개신교, 천주교 신자가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중환자실 간호사는 불교가 유의하게 많았음을 미루어 볼 때 종교가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대처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대상 두 그룹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는 문제 중심 영역, 그 다음 긍정적 관점 영역, 사회적 지지 탐색 영역 순으로 Gang(2007)의 206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Kim(2006)의 123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240명의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Oh(2005)의 연구에서도 두 집단 모두 문제 중심 대처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를 가장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를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0)의 연구와 보험심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2002)의 연구,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1998)의 연구에서도 문제 중심의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암병동 간호사의 대처 정도는 평균 2.64점이었고, 연구대상 두 그룹 모두 하위영역별 대처는 문제 중심적

대처, 긍정적 관점대처,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 순으로 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희망적 관점 대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2004)의 암병동 간호사 1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Seo(2000)의 암환자를 돌보는 13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해 암병동 간호사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 중심 대처나 긍정적 관점 영역 대처를 많이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위의 연구에서처럼 대개의 간호사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좀 더 문제 중심적으로 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운명에 맡기거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암병동 간호사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순환을 가져오리라 생각되며, 향후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확대, 반복된 연구가 필요하고 병동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처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에서는 간호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병원 행정 및 병동관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관심 관점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 모두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는 무관심 대처와 희망적 관점을 통한 대처였고,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에서, 직무환경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관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병원 행정 및 병동 관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관심 관점의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6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ang(2007)의 연구결과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관심 관점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123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6)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하위영역과 대처간의 관계에서 간호업무와 직무환경 스트레스는 희망적 관점의 대처를 많이 하며, 대인관계, 병원 행정 및 병동관리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탐색과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아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확대,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본 연구에서처럼 연구 대상자가 많이 사용한 무관심관점의 대처도 좋은 대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가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따른 대처 정도를 조사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간의 차이를 비교한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J시와 P시 소재의 500병상이상 진료기관의 중환자실 간호사 62명과 암병동 간호사 69명이다. 연구도구는 Kim(1989)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3$ 이었고, 대처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것을 Han과 Oh(1990)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9$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chi^2$ 로 비교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대처정도는 t-test로 비교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비교는 중환자실 간호사(M=2.93)가 암병동 간호사(M=2.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453, p<.01$ ).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항목인 간호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중환자실 간호사(M=2.69)가 암병동 간호사(M=2.40)보다 높았고( $t=3.717, p<.01$ ), 직무 환경 관련 스트레스도 중환자실 간호사(M=3.26)가 암병동 간호사(M=2.78)보다 높았다( $t=4.558, p<.01$ ).
- 또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M=2.849)가 암병동 간호사(M=2.51)보다 높았고( $t=3.424, p<.01$ ), 병원 행정 및 병동관리 스트레스에서도 중환자실 간호사(M=3.05)가 암병동 간호사(M=2.71)보다 높았다( $t=2.942, p<.01$ ).
- 연구대상자 두 그룹 모두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직무 환경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대처 정도 비교는 암병동 간호사(M=2.64)가 중환자실 간호사(M=2.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처 정도의 하위영역으로는 사회적지지 탐색적 대처에서 암병동 간호사(M=2.78)가 중환자실 간호사(M=2.59)보다 대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t=-2.865$ ,  $p<.01$ ).

그러나 문제중심적 대처, 긍정적관점 대처, 무관심관점 대처, 희망적관점 대처, 긴장해소 대처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처 정도의 하위 영역인 문제중심적 대처, 긍정적관점 대처, 무관심관점 대처, 희망적관점 대처, 긴장해소 대처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암병동 간호사의 대처 정도가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높았다.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간호 직무스트레스와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간( $r=.296$ )에 정적(+)인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행정 및 병동 관리스트레스와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 $r=.266$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 행정 및 병동 관리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무관심관점 대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병동 간호사의 간호 직무스트레스와 전체 대처 정도( $r=.266$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대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비교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확대·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 병동특성별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강구하여 간호사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 References

-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Nurses.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2001). Critical Care Workforce Partnership Position Statement: The Aging of the U.S Population and Increased Need for Critical Care Services. American Thoracic society,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behavioral sciences*(second ed)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Eun, H. J. (2005).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cancer patient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 Gang, E. H. (2007). *A study on the Job stress and the coping of ICU Nurse*.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Han, J. S., & Oh, G. S. (1990). The relation among everyday occurrences from stress, the issue of health, the countermeasures and social support-targeting the youth. *J Korean Acad Nurs*, 20(3), 414-429.
- Jeon, S. H. (2004). *A research in the job stress and the burnout experiences of nurses examining medical insurance*. Master's thesis Jeonnam University Gwangju.
- Kim, B. S. (2000). Clinical nurses' job stress, coping method and business satisfaction. *Jungang Collection of Nursing Papers*, 2(2), 17-34.
- Kim, M. J. (2005). *Relationship among spiritual well-being, work stress and burnout of nurses in oncology unit*. Dep of Nur scie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usan.
- Kim, M. Y. (2004). *The burnout and coping type of nurses working in cancer ward*. Clinical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J. (2006). *The study on the work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the nurses in ICU*.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1). *Clinical nurses' job stress and the reaction mod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Y. T. (1989). *The relation between the cause of nurses' job stress in the intensive care unit and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Administrativ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Seoul.
- Kristina Berg. (2002).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in Norway*.
- Lamkin, L., Rosiak, J., Buerhaus, P., Mallory, G., & Williams, M. (2001). Oncology nursing society workforce survey part II: Perceptions of the nursing workforce environment and adequacy of nurse staffing in outpatient and inpatient oncology settings. *Oncol Nurs Forum*, 28, 1545-155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onger Pub. co. New York.
- Lee, C. H. (2000). *A study on th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work stress of Nurse in Intensive Care Unit*. Dep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Major in Nursing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E. G. (1998). *The stress and the coping method of nurses in surgeries*. Master's thesis, Administrative Graduate School Gyeonggi University. Seoul.
- Oh, M. S. (2005). *The burnout and coping type of ICU nurses and nurses working in the general ward*. Clinical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Oh, P. J. (2005). *Oncology Nursing*. Seoul. Shin Kwang pub co.
- Park, H. S. (2002). *The job stress and the coping method of nurses examining medical insurance*. Master's thesis Gyemyeong University. Daegu.
- Park, J. J. (2006). *The study on the Job stress and the satisfaction of cancer unit nurse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Poncet, M. C., Toullic, P., Papazian, L., Kentish-Barnes, N., Timsit, J. F., Pochard, F., Cheveret, S., Schlemmer, B., & Azoulay, E. (2007, Apr). Burnout syndrome in critical care nursing staff. *Am J Respir Crit Care Med*, 1;175(7), 698-704.

Seo, M. J. (2000). *Burnout and coping type of oncology nurs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Verhaeghe, R., Vlerick, P., De Backer, G., Van Maele, G., & Gemmel, P. (2006, Nov). Recurrent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job resources and distress among nurses: A comparative cross-sectional survey. *Int J Nurs Stud*, 29, [Epub ahead of print].

## A Comparative Study on Job Stress and Coping of the Nurses in ICU and Cancer Ward

Baek, Myung-Wha<sup>1)</sup>

1) Professor, Jinju Health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Job stress and Coping of the nurses in ICU and Cancer ward, and to compare the Job stress and Coping between two groups, and finally to get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adequate method to promote Coping about Job stress of the nurses in ICU and Cancer ward.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1; 62 nurses in ICU and 69 nurses in Cancer ward. Data were collected from 27th August to 14th September in 2007.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Job stress scale(55 items) developed by Kim(1989), and Coping scale(32 items) developed by Lazarus and Folkman(1984) and revised by Han and Oh(1990). For the data analysis, SPSS PC/win 12.0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s; The mean score of Job stress(range 1-5) was 2.93 in ICU nurse and 2.58 in Cancer ward nurs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 $t=4.453$ ,  $p<.01$ )between the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scale of Job stress between the two groups, such as Nursing job( $t=3.717$ ,  $p<.01$ ), Job circumstances( $t=4.558$ ,  $p<.01$ ), Personal relations( $t=3.425$ ,  $p<.01$ ), Hospital administration and ward management( $t=2.94$ ,  $p<.01$ ). The mean score of Coping(range 1-4) was 2.55 in ICU nurse, and 2.54 in Cancer ward nur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one subscale of the Coping(Search of social suppor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2.865$ ,  $p<.01$ ).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Coping of ICU nurse vs Cancer ward nurse except one subscale in cancer ward(correlation between Nursing Job and Coping). **Conclusion:** The ICU nurse is higher than the Cancer ward nurse in the Job stress score significantly and lower than the Cancer unit nurse in the Coping.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is needed the program development using the Coping methods in accordance with ward speciality to relieve Job stress.

**Key words :** Stress, Coping, ICU, Cancer ward, Nurs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ek, Myung-Wha  
Jinju Health College  
1142 Sangbongsedong, Jinju-city, Gyeongnam, Korea  
Tel: 55-740-1843 Fax: 55-743-3010 E-mail: bmwha@naver.com